

산 사람에게나 마음이 있지 죽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어

욕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

이긴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런 고로 영생이라는 건 사망의 신을 이겨야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망의 신을 못 이기면 영생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망의 신에게 점령당하면 죽는 고로 마귀를 이기는 연단을 이 사람이 시키고 있죠? 마귀를 이기는 연단이 바로 나를 이기는 연단인 고로 나를 이기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영이 믿음이고, 생명과일이라는 걸 말씀했죠? 또한 마귀를 이기는 영이 감춰진 만나인 감로이슬 성신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감로이슬 성신을 받으면 마귀를 이기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영이 들어와야 나라는 의식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선악과가 틀림이 없다는 것은 아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욕심이 죄라고 하면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 부리니까 바로 욕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이요?

욕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인 고로 나라는 의식이 근본적인 원죄가 되고 또한 원죄가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씀인 고로 선악과가 영이요? 영이 바로 신이요? 신은 신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니까 죽이는 신이요? 죽이는 신이니까 마귀신이요?

나라는 의식이 무슨 생각을 해도 피가 썩어

그리고 오늘날 나라는 의식이 마귀신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죠?

과학적으로도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피가 썩어서 먹은 음식이 체해가지고 위가 뒤틀리게 되는데 이때 사관들

따게 되면 시커멓게 썩은 피가 터져 나오면서 막혔던 혈관이 뚫려서 다시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가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시커멓게 피가 나왔다는 것은 피가 썩었다는 증거예요, 피가 안 썩었다는 증거예요? 피가 썩었다는 증거예요? 그냥 썩었을까,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렸으니까 피가 썩었을까? 욕심을 부리니까 피가 썩었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비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죠? 나라는 의식이 무슨 생각을 해도 피가 썩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했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오래 살아서, 병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살면서 나라는 의식이 생각을 많이 하면 피가 썩는 고로 그 썩은 피가 10%, 20%, 50%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은 썩은 피로써는 세포가 조성되지 아니하고 안 썩은 피로 세포가 조성되는 고로 50% 피가 썩었다면 50% 밖에는 세포가 재조성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0% 밖에 재조성 되지 못하는 고로 50%가 미달된 세포니까 사람이 주글주글 늙게 되고 기력이 없어지면서 저항력이 약화되니까 병이 한 번 걸리면 점점 그 병이 심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좋게,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새가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열 번 정도 이렇게 윤회를 하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설을 논하고 있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사람의 영이 떠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사람의 영이 떠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영이 떠나가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사람이 죽을 때 영이 죽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생명이 죽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이 사람이



구세주 조화성님

말하는 것은 두드러 맞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은 마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생명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생명만 하나님의 생명이요, 꽃나무 속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요. 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 사람만 마음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마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마음이 없죠? 성경에 마음이 영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영이 떠나간다면, 마음이 떠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피의 작용이 마음이요? 그 피가 심장박동에 의해서 몸에 왔다, 갔다 해야 마음이 생기는 거지, 피가 정지 상태에 있으면 마음이 생겨져요? 과학적으로도 이치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생명이 피”라고 레위서 17장 11절에 썩어 있죠? 또한 “생명이 되는 피째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창세기서 9장 4절에도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는 거죠?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얘기인데, 피의 작용

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말은 마음자체가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영인고로 영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대로 사람 속의 마음이 영인고로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죽는 고로 죽는 거지, 마음이 살아 있으면 안 죽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의식이 있는 사람, 죽읍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 곧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에는 의식이 없어져요.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과학적으로 이치가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불교의 윤회설은 허황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죽은 사람 생일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전부 헛짓이요? 일단 죽으면 영이 소멸되어 없어져요. 영이 소멸되는 고로 육도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땅속에 갖다 묻으면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썩어서 이제그대로 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읊어서 14장 14절에 썩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질즉 그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내세가 바로 현재

이렇게 구약성경은 또렷하게 썩어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사람 죽으면 영이 천당가고 지옥간다고 말을 했던 고로, 그걸 그대로 100% 믿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황된 말을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마음이 없고 의식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되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죽는 순간 영도 죽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영이 죽으니까 사람 몸이 따라서 죽어서 썩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똑똑하게 알아야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기어이 이루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야 이게 바로 마귀를 상대로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러니까 6천년간 우리가 조상대대로 살다가 죽어서 소멸되어버렸는데 이제 오늘날 죽은 사람의 그 영들은 다 죽어서 소멸됐지만 바로 죽은 사람의 그 피가 역시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죽은 사람들의 영이 있기에, 그 죽은 사람들의 영이 바로 이제 현재 여러분들 속에서 살고 있죠?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죽은 조상님들이 내세에서 사는 거예요. 내세가 바로 현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독교나 불교에서 내세관을 얘기한다는 등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내세가 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전도를 해야 되겠죠?

마귀를 이겨야 전도가 되는 고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해지는 거죠? 전도를 한 명 해왔다는 건, 바로 마귀를 1단계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생활을 연거푸 하게 되면 완전히 이긴자가 됩니까? 실패자가 됩니까? (이긴자가 됩니까) 그래 이긴자가 천당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이 착한 사람이 천당간다고 기독교에서 말하죠? 그건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신을 이겨야 하나님이 되고 사망의 신을 이겨야 천당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되는 고로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구원론이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하자가 없지? 틀림없는 구세주이니까 이제 구원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도 논하고 성경적으로도 논하고 이제 이치적으로도 논하죠? 사리에 맞게 논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리에 맞는 말을 할 때는 이거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고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에 맞는 말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세계 공산주의도 없애버리고 태풍도 못 불어 오게 하고 여름장마도 못 지게 하고 풍년 들게도 하고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도 하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하죠? 쥐뿔도 실력도 없는데 주맹이만 나불거려서 그렇게 할까? 실력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40억 명이나 되는데 일시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요술쟁이나 그렇게 할까?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40억 명 속에 들어가서 일제히 모가지 비틀어서 죽여 버리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좋다면 사람들이 ‘공산주의 싫다!’하고 하게 되니까, 공산국가가 존립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81년도부터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막상 90년도에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석방되는 날 무지개가 우리제단에 서니까 믿어졌죠?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조한 날씨에 무지개가 섰다는 건 이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인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격암유록에 이제 이 사람이 61세 때에 무지개가 섰고 갑을론에 가 썩어 있죠? 승리제단에 무지개가 섰 것은 승리제단의 주인공 구세주가 공산주의를 없앴다는 증표죠?*

2001년 6월 4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혁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5)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

(지난호에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하나님(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절: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모세 앞에서 다짐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회고 깨끗한 열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과 칠십 명의 장로들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내게 올라오너라.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을 내게 주리라. 그것을 따라 너는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니라.”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부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존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부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기 전에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40년의 광야생활》

(5)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회고 깨끗한 열두 기둥 (출24:4) <https://visitmounsinaiarabia.com/tour-places-ko/시내산-앞-12개의-돌-기둥/?lang=ko>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터이니, 사건이 생기거든 그들에게 가서 판단해 달라고 하십시오.”

산중턱에 이르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거기에 홀로 남아 기다리게 하고 모세만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구름은 산을 뒤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 찼습니다. 구름은 옛세 동안 산을 싸안고 있었으나, 이제째 되는 날,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

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꼭대기에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40일 낮과 밤(사십주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시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와 거할 성전, 곧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열두지파 중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지명하

여 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라. 그리고 예서의 후손이며 그나스 사람 훌의 손자 브살렐과 그밖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홀리압의 조수로 임명하라. 나 여호와와 단지파의 아들

1 하나님께서 사십주야를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중 유독 단지파에 속한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단지파 자손에서 천국의 성전을 건립할 자가 나오게 된다고 암시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인 오홀리압에게 성막 건축을 주께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석판을 주신 시내산

오홀리압과 그 조수들에게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한 후, 화막과 법계와 떡상과 순금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구멍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입을 의복을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과 지내고 하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로 된 석판 두 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안젤라